



열다섯번째 이야기

신생일치(信生一致)

그는 이천만광장에서 한숙영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런 모습으로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제가 동석하자 순간 표정이 굳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정자세를 하고 몸을 곧추세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NYT 기자도 아닌데..’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매체와의 엄청난 인터뷰든, 저 같은 사람과의 작은 인터뷰든 그는 ‘그의 지금’에 차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는 쉽게 흘러갔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요구했고, 그는 끈질지게 정보로만 답했습니다. Story 와 Information 의 라이벌 맞



대결에서 스토리가 완패한 인터뷰라고나 할까요. 후훗. 그가 하는 농담은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농담은 웃으라고 하는 거”라고 몇번을 얘기해주고 싶었으나 꾸욱 눌러 참았습니다. (^.^) 의외로 그의 ‘정보’가 웃겼습니다. 예를들어, 원칙적인 성향이 강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새벽 3시에 운전하고 있다. 도로엔 다른 사람이 없다. 차도 없다. 횡단보도다. 빨간 신호다. 그냥 가시겠느냐.’ 그의 답변은? “(헐~ 표정으로) 제가 새벽 3시에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후훗) 뭐든지 정직한 답을 얘기해야 하는 그는 상상과 가정법을 동원한 답변을 많이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참 맑고 순수한 분이시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BEE 오는 수요일’ 열다섯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청년’ 강문종 장로님이십니다. ^^

암기력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입 재수 하던 때였어요. 가이드 포스트가 실수로 저희 집에 잘못 배달됐어요. 수신인 이름은 김정애였어요. 석달 동안 그냥 받아봤어요. (의외죠? ^^)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후로 30년 동안 가이드 포스트를 구독했구요.” 보셨죠? **이 분은 사실관계 위주로 탁탁 짚아서 답을 하십니다. 그는 느낌을 전달하는 형용사 사용이 지극히 제한적인 언어생활의 소유자셨습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 싱가포르 출장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문상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 뵈었습니다. 그때 김정년 선교사님께서 불고기를 해주셨다고 굳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불고기로 인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굳이, 조 선교사님 집 서재에 BEE 교재가 잔뜩 꽂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쪽~보니까, 성경공부를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신도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하고...그래서, 2000년 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와 BEE와의 인연도 이 정도 ‘정보’면 ‘스토리’의 끝이었습니다. 애꿎은 불고기를 언급하시기에 뭔가 소소한 에피소드라도 한 줄 쓸 수 있을까 녹취록을 두번 확인했습니다. (김정년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맛에 대한 ‘정보’는 안타깝게도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인간 관계 보다 책과 글자를 통한 경험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불리고 싶으신지 여쭙었더니, “정도(正道)와 상식(常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런 단어는 세상 속 선거철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강 장로님이 정치인 같이 느껴졌느냐? 그럴리가요. **그럼 그의 말이 거짓말 처럼 느껴졌느냐, 어우, 그럴리가요. 그의 ‘정도와 상식’은 세상의 그것들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도와 상식은 삶으로 살아내온 실천 윤리였던 반면, 세상의 정도와 상식은 그냥 신문에 나오게 하려는 글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당회를 할 때도 원칙이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좀 처럼 물러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여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걸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교회 운영 시 추가 비용이 발생, 다른 장로님들로 부터 눈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회의 석상에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한 까닭에 조용하고 차분한 강 장로님의 의견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물러나셨을까요? 그럴리가요! 그의 강점은 글자! 그는 차분하고 철저하게 자료와 근거를 모아 장문의 이메일을 당회 멤버들께 보냈습니다. 물론 그의 의견이 관철됐구요. 후훗. **“솔직히 저도 그런 역할을 안 맡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마저 불법적인 내용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그의 순한 눈매와 조용한 말투가 아주 강인한 그것으로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님으로 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셨던 그의 선친께서는 자신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도와 상식에 철저하셨다 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간단한 휴지조각도 길거리에 버리시는 법이 없으셨다 합니다. 그로 인해 선친 또한 동료 변호사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같은 이유로 칭찬도 많이 받는 스타일이셨다 했습니다. 순간, 강 장로님께서 일상에서 지키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대말 하기, 거짓말은 가급적 하지 않기, 남의 비밀은 본인이 해제하기 전엔 절대 오픈하지 않기... 강 장로님 처럼, 약속과 예의에 집중된 원칙들을 수두룩 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 그는 즉석에서 거절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힘드신지 여쭙었더니, “틀린 얘기를 하기 싫어서..” 라 답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엇보다 자신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그런 답변을 하고 싶은 성품이었습니다. **회사 모든 의견과 얘기가 약속인 것 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을 내용을 답해주거나 충고해주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언행일치, 신생일치의 삶이랄까. 그에게 말은 꼭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은 꼭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얘기 앞에선 천하의 강 장로님도 조금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인가 여쭙었습니다. “1997년 어머님께서 뇌종양에 걸리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어요. 4일 동안 한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6개월을 누워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인터뷰 시작할 때와 똑같은 톤과 목소리로 끝까지 정보로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드라이한 정보 중심의 스토리에 그새 감정이입 하는 법을 터득했다고나 할까요. 감정이 지극히 절제된 30대 청년 강문종이 4일 밤을 한숨도 못잘 정도로 괴로웠다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약속들을 또 얼마나 성실히 실천했을지도 떠올랐습니다. 속으로만 눈물을 흘리도록 훈련된 어떤 인류를 눈 앞에 그리며, 저 혼자 맘이 짠해졌습니다. 아내 얘기에 이르자, 미안하다는 표현이 잦아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내의 꿈을 멈춰야 했는데... 요즘도 자주 같이 못있어 줘서 아내에게 잘해주질 못해요” 한 권사님께서 한 말씀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잘해주시는 거예요~” 강 장로님께서 약 2초 머뭇거리시다 (아하 하는 표정과 함께), “그렇다면,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라 답하셨습니다. 모두 깔깔 웃었습니다. 끝으로 외동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Life lesson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살다보면 힘들 때가 오고,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힘들 바로 그 때도 하나님을 놓지 말자. 끝끝내 붙잡고 있자.”**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강문종 장로님은...

1959년생. 기타치며 찬양 인도 하시는 서울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한 때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BEE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사역이라고 몇번을 강조하셨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삶을 나누는 걸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쟁업체’도 없구요 ^^ . 그의 기도 제목은 재능 기부. 가족으로는 아내 김희숙 님 사이에 대학교 3학년 된 딸 강희재를 두고 있습니다.



BEE 소식

1. 7월7일(토) 6시반 한동홀에서 All & One 으로 모입니다 . 이날 후반부에 권태남, 김미연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2. 7월 27~31일 베트남 아웃리치 현재 홈페이지에서 접수중입니다.